

영암 추경 5,130억원 편성 '역대 최대'

농림해양·사회복지·보건분야 20%이상 증가 일자리사업 대거 반영·폭염대책비 긴급 편성

영암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130억원을 편성하고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4,634억원 대비 496억원(10.7%) 증가한 금액으로 군 사상 처음 예산규모 5,000억원

을 돌파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 대비 442억원(10.6%) 증가한 4,60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8억원(10.3%) 늘어난 82억원이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438억원으로 46억원(11.7%)이 증가했다.

기능별로는 농림해양과 수산분야 1,239억원(24%), 사회복지와 보건분야 1,107억원(22%), 환경보호분야 653억원(13%), 국토지역개발과 수송교통분야 650억원(12%), 문화·관광분야 348억원(7%) 순이다.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와 희망근로지원 사업, 영암지역 실업극복·고용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대불국가산단단지 환경개선 등 고용위기지역 선정에 따른 국도비 사업을 대거 편성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특보 등 무더위로 인한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시설·장비지원, 그늘막 설치 등을 긴급 반영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은 고용·산업 위기지역 선정에 따른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과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여 앞당겨 시행했다"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사업의 예산 반영 등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말했다.

이와 관련 영암군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 추경 예산안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영암군의 추가경정예산은 올해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4,634억원 편성, 본예산 3,944억원 대비 690억원(17.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최종예산 4,966억원에 육박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내고장 일꾼



명현관 해남군수는 16일 오후 3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농정분야 예산편성 간담회에 참석한다.



신우철 완도군은 16일 오전 8시 30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완도군 경영혁신 보고회에 참석한다.



황인섭 영암부군수는 16일 오전 8시 30분 부군수실에서 간부공무원 참석하신 가운데 목요타임을 갖는다.

“기본에 충실한 치안활동 펴자”

제73대 조규향 강진경찰서장 취임

조규향 제73대 강진경찰서장이 취임했다.

15일 강진서에 따르면 조 서장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경찰 정신 구현을 다짐하고 기본에 충실한 치안활동을 당부한다”며 “바르고 유연한 법집행을 통해 민주경찰, 인권경찰, 민생경찰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신임 조규향 서장은 나주 출신으로



지난 1989년 경위로 경찰에 첫발을 디딘 후, 광주지방경찰청감찰계장, 충남경찰청정형보안과장, 부여경찰

서장, 전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완도군 해양쓰레기 전담 수거·처리단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분류하고 있다.

완도 한달새 ‘해양쓰레기’ 12만 리터 수거

전담 수거·처리단 구성 읍면 순회 분리 활동 펼쳐

완도군이 지난달부터 최근 한 달 동안 해양쓰레기 12만 리터 분량을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군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의 전복·해조류 양식 시설이 설치돼 있는 완도군은 지리적 특성 및 태풍, 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폐어구, 페스티로폼 등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늘고 있다.

지난해는 폐어구 등 3,532톤의 해

양쓰레기가 발생했고, 올 들어 지난 6월 20일까지 1,602톤이 발생했다.

군이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60%가 페스티로폼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는 폐어구, 10%는 일반쓰레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20% 가량은 타 지역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로 분석된다.

이번에 바다에서 수거한 페스티로폼 등 12만 리터는 무게는 가볍지만, 36.3평형 아파트 내부를 1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분량이다.

군은 바다쓰레기를 줄여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7월 해양쓰레기 전담 수거·처리 공무원 4명을 채

용했다.

전담 쓰레기 처리단은 7월 10일부터 보길면 백도리를 시작으로 6개 읍면 11개 마을을 돌며 수거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연말까지 생일면, 노화읍 등 12개 읍면 해양쓰레기 및 페스티로폼 수거·분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마을별 수거·처리를 당부하고 있다”며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바다를 지키려는 국민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완도 해양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탄력

완도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사)노르딕워킹 인터내셔널 코리아(총재 강지원)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완도 해변과 숲길에 노르딕워킹 전문 코스 발굴, 노르딕워킹 전문 인력·기술·교육 분야 업무지원, 국내·외 노르딕워킹 대회 유치 및 동호회 교류에 상호협력기

로 했다. 완도군에서는 ‘미래성장 해양치유’를 군정 최우선 방침으로 정하여 해양치유산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해양치유와 연계한 노르딕워킹을 특화 자원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신안 신속재정 집행 ‘전국 최우수’

신안군이 중앙정부 최고 재정시책인 올해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15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속집행 목표액 1,606억원 대비 120.11%인 1,929억원을 집행해 전남에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000만원과 포상금 500만원을 받는다.

그동안 신안군은 겨울철 기상악화로 연간 섬 지역 교통 통제일수가 100여일에 이르는 매우 열악한 자연환경과 방파제사업 등 대형 공사가 많고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어려운 행정여건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에서 전국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부진사업 재검토를 통한 이월사업 최소화, 준비되지 않은 사업 예산편성 억제 등 재정효율화에 노력을 기울여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신안=이주열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 사 010-4601-5323
- 목 포 010-3272-2765
- 011-632-0323
- 010-3635-6777
- 신 안 010-4627-1472
- 영 암 010-4624-8409
- 진 도 010-3624-4777
- 완 도 010-5619-7020
- 해 남 010-8181-2627
- 강 진 010-6646-1241



해남군이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사진은 노래강좌 모습.

“평생학습관에서 배우는 기쁨을”

해남평생학습관 리모델링...하반기 수강생 모집

해남군 평생학습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하반기 강좌부터 새롭게 찾아간다.

해남군 평생학습관은 기존 여성회관의 명칭과 기능을 전환해, 명실상부한 군민 평생학습 요람으로 오는 9월 10일 새롭게 문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건립 20여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물을 새로 단장하고,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 등을 신설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강좌부터는 리모델링을 마친 건물에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군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하반기 강좌는 기존의 교양 취미 강좌뿐 아니라 바리스타, 아로마디자이너 지도사, 책놀이 지도사 등 자격증분야를 추가로 신설한다.

신청자격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 교육은 9월 10일부터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과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나 해남군평생학습관(061-530-5319, 571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박병태 기자

클릭! 고향 소식



영암 가정폭력없는 세상 만들기 홍보

영암군은 최근 행복가정상담센터와 함께 월출산 기간랜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와 여성의 가정 폭력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거리홍보를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홍보에는 사이버 성범죄 예방,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범죄 위기상황 처리방법 등에 관한 리플릿을 배포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인 아동과 여성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홍보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



장흥 ‘함께 나누는 건강’ 밑반찬 봉사

장흥군새마을부녀회는 최근 새마을부녀회가족 20여명과 함께 지역 홀몸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함께 나누는 건강 밑반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나눔 봉사는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는 홀몸노인 150가구를 대상으로 안부물기와 건강 밑반찬 3종을 전달했다.

장흥군새마을회는 올해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돼 ‘사랑으로 찾아가는 새마을 행복도우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장흥=이옥현 기자



함평 청소년 방과후 여름캠프 실시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비’는 최근 2박 3일 일정으로 경남 남해유스타운에서 ‘다함께 차차차’ 여름캠프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팀 협력활동, 스포츠오디션, 바나나보트와 래프팅 보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기쁨을 넘어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즐겁고 소중한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영광, 한빛원전에 축제 지원 감사패

영광군은 최근 마무리 된 제9회 천일염젓갈갯벌축제 홍보 후원을 지원한 한빛원전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영광천일염젓갈갯벌축제는 소금 및 젓갈 명산지이자, 세계 3대 갯벌을 품고 있는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빛원전은 이번 축제에 5,000만원을 지원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영광을 소금 및 젓갈 산지로서의 명품 이미지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곽윤순 기자